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워크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04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10	주제전시 MAIN EXHIBITION HANDSHAKE
16	특별전시 SPECIAL EXHIBITION SHAKING HERITAGE
20	전시 속 전시 EXHIBITION IN EXHIBITION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
24	스페셜 프로젝트 SPECIAL PROJECT CREATIVE SPACE
36	워크숍 1,2 WORKSHOP 1,2 HAND WITH HEART, RE;TABLE ISSUE.2 SOLDIER BECOMES WORKER
40	강연 1,2,3 CONFERENCE _ LECTURE COLLECTIVE DIALOGUE 1,2,3
46	라운드테이블 1,2,3 CONFERENCE _ PODIUM DISCUSSION ROUND TABLE 1,2,3
49	한국문화의 밤 KOREA CULTURE NIGHT

일러두기 NOTES

- 이 자료집은 2017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독일 뮌헨의 골드버그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 주빈국 행사>의 아카이빙을 위하여 발간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 제작되었다.
-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 성명 및 명칭은 한국어 표기법에 따랐으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 수록된 사진은 작가 및 소장처에서 제공받거나, 본 행사를 위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다.
- The catalogue was published for archiving of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old at the Goldberg Studios in Munich, Germany from March 4th to 12th, 2017.
- The catalogue is published in Korean and English.
- The names of participants are written in Korean orthography, and surnames are written in upper case.
- The photographs in the catalogue are provided by participating artists or owners, or were taken at the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for this event.



MCBW 2017 Opening at the BMW World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기간 | 2017년 3월 4일(토) - 3월 12일(일) 9일간
장소 | 뮌헨 골드버그 스튜디오
주제 |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Period | March 4, (Sat) - 12, (Sun) 2017. 9days
Location | Goldberg Studios, Munich
Theme |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Hos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r |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워크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뮌헨은 유럽의 강국 독일의 3대 문화예술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워크(MCBW 2017)의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전시, 컨퍼런스, 워크샵 등 한국 공예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여러 유럽권에서 전시를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MCBW 2017 주빈국 프로그램은 한국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공예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공예의 저력이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골드버그 스튜디오에서 열린 Korea Day 개막식에서 독일 현지의 공예디자인 전문가, 미디어 등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 공예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문의를 통해 우리의 공예가 얼마나 국제적인 미감을 지녔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희 진흥원은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 공예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수한 공예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판로를 더 넓혀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권에서 한국 공예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MCBW 2017은 바로 그러한 교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작품을 내어주신 장인, 작가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협조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전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바이에른 디자인과 관계자 분들, 그리고 진흥원과 한국 공예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임미선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뮌헨 MCBW 2017 주빈국 행사를 열며 MCBW 2017 in MUNICH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Bonghyun CHOI,
President o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Munich is known as one of the three most prominent cities of culture and art in Germany, an economic powerhouse in Europe.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CDF"), along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of Korea, had the honor of participating in the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MCBW 2017") as the partner country, and showcased a broad range of programs, including exhibitions, conferences and workshops to propagate the value of Korean crafts and design.

To promote the exquisite Korean crafts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KCDF has hosted a number of exhibitions and fairs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Italy and the UK. In particular, I believe the partner country program of MCBW 2017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present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beautiful crafts and design that reveal the uniquely Korean aesthetic sensibilities and colors, which is expected to help expand the customer base and the reach of the Korean crafts. The opening ceremony of Korea Day held in Goldberg Studio drew more than 300 visitors, including local crafts and design practitioners, professionals, media representatives, etc.. The participants raised countless inquiries and questions about Korean crafts and design, which seemed to testify to the international appeal of Korean design works.

For the last several years, KCDF has promoted Korean crafts across Europe under certain messages. Now, in order to weave outstanding Korean crafts into every life with enhanced practicality, it is essential to broaden their market and distribution channels. Starting with Germany, we will continue our dialogues and interactions with European countries to develop a glob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crafts. The MCBW 2017 w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such efforts for increased exchanges in the craft and design communities.

We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our master artisans and artists for their genuine cooperation and collective efforts. Also, we extend our gratitude to Bayern Design and its staff for their cooperation in hosting the exhibition, as well as art director Misun RHEEM for her dedication to Korean crafts and KCDF.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글 / 전시감독 임미선
by Misun RHEEM, Art Director



산업경제 모델의 모색을 통해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이 4차 산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24시간 연결되는 초 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에서 무수한 차이들의 융복합 과정에서 야기되는 예측불허의 경제 산업 리스크와 다양한 모순 즉, 과학과 논리로 해결되지만 현실에서 존재하는 마찰, 갈등, 불안, 결핍 등을 관리하는 경영자의 지혜와 통찰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문화적 생존물인 유무형의 문화자산(아이디어, 창의력, 기술)을 보존, 계승, 연구해 온 경험의 지혜를 갖고 있다. 과거 농촌사회의 공동노동 풍습인 ‘두레’를 비롯해 조선시대 제조수공업 체계인 ‘경공장(관영)’과 ‘외공장(민영)’은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즉, 방대한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 학습과 피드백 고리, 협력과 연결성 등이 주요 가치로 ‘사람과 사람 간(Human Connection)’에 학습되고 재훈련되며 노하우와 결과물들이 축적 공유되어 연대하는 순환체계 속에 전통적인 제조업이 이루어졌다. 비록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사회복구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혼란 속에 산업체계는 사라졌지만 지난 60년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정보통신(IT) 강국으로서 오늘에 이른다.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이번 2017 MCBW 파트너 국가인 한국은 스마트를 넘어서 지혜! 즉 현명한(Smart) 미래사회를 위한 제안으로 ‘휴먼 코넥션(Human Connection)’이라는 주제아래 ‘집단적인 지혜(collective wisdom)’와 ‘집단적인 대화(collective dialogue)’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전시, 워크숍, 컨퍼런스,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주제전 ‘Handshake’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예, 디자인, 패션, 그래픽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뉴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전시는 ‘개방’, ‘공유’, ‘협업’, ‘공존’을 키워드로 여러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 기술 등이 만나 혁신적인 한국디자인을 창조해 가는 ‘콜라보노믹스(collabonomics, 협업경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컨퍼런스에서는 교육, 유산, 산업을 주제로 강연 및 라운드테이블 등이 진행되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디자인 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및 재교육이 관건인 오늘날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있는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PaTI)’의 사례와 한국의 고유한 문자언어인 ‘한글’과 ‘한국그래픽디자인’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을 고민하는 ‘국립무형문화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의 ‘뉴 디자인 협력프로젝트’와 함께 ‘한국 제조업혁신 3.0’과 연계한



디지털시대 공예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아이디어와 기술, 기업과 개인 등 규모, 업종, 민관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집단적인 대화’의 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한국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핸드 온 워크숍과 문화이벤트 등이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MCBW) 동안 뮌헨의 문화중심지구에 위치한 골드버그 스튜디오 전관에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MCBW 2017 주빈국 행사는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는 ‘소프트파워’와 ‘한류(Korean Wave)’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공예디자인이 선도하는 문화산업의 미래를 가로지르는 한국문화의 정신과 태도를 공유하는 기회였다.



Klaus Schwab, the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stress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6)』 that today's rapidly changing economic and industrial environment requires a collective enlightened wisdom more than ev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refers to the next-generation industrial revolution aiming at improving work competitiveness by converging manufacturing and ICT has become evident with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technology growing at fast pace and virtual-physical systems (smart factory, autonomous vehicles) being built. Therefore, the following argument of Schwab seems compelling: practicing “human-oriented values” by seeking a sustainable model for future societies, industries and economies through openness, sharing, connectivity and solidary based on crowd-sourcing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 hyper connected society connected 24/7 through Internet and smartphones, wisdom and insights are all the more crucial for entrepreneurs who need to manage diverse unexpected economic and industrial risks and inconsistencies that arise from constant convergence process (which can be solved with science and logic but in reality take different forms of trouble, conflicts, concerns, and deficiency).

Based on its long history and culture, Korea has wisdom gained from experience on preserving, succession and study about culturally survived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 like idea, creativity and technic. As Korean handcraft system, including *Du-rae*, joint labor custom of agricultural society, *Gyeong-gongjang*(government lead) and *Wi-gongjang*(private management)'s manufacturing system was managed based on thorough independent and collaborated works of experts by field. In other word, traditional manufacturing system was managed in cyclical system where data of mas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chain of learning and feedback,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were learnt and retrained between people as major concept (Human Connection).

Through this system, knowhow and results were shared and accumulated. Even though this industrial system was fad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Korean war and political, social, economic turbulence after war, Korea achieved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last 60 years and became a global leader in IT today(Smart).

As MCBW 2017's partner country, under the theme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Korea composed program with ‘collective wisdom’ and ‘collective dialogue’, exhibition, conference, workshop and event were managed in this frame. The main exhibition ‘Handshake’ introduced examples of collabonomics of Korean craft design and graphic. Under the keywords: Sharing, Collaboration, Coexistence and Open, Idea, creativity and technology of various experts like craftsman, designer, maestro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et and compose new design scenery. In conference, lectures round-tables were managed about education, heritage and industry. Also Today can be considered digital age. And this era requires re-education for new paradigm and training human resource through design training and innovational educa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ere were a lecture about Korean typo design and PaTI. It makes experimental design education environment. In addition, about the value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troduced their joint project. Also lecture about ‘innov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3.0’, new paradigm of craft industry in digital era was given. In Roundtable, a forum of collective dialogue, Korean and German experts exchanged various opinion about idea, technology and created cooperative ecosystem between individuals and enterprises. Moreover, During the MCBW 2017, various opportunities like workshops and events where one can meet various Korean culture were scheduled as much as exhibitions and conference.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골드버그 스튜디오 Goldberg Studios

프로그램 MCBW 2017 PARTNERLAND KOREA PROGRAM

행사구분 Category		프로그램 Program	일자 Date	시간 Time	장소 Place
전시 Exhibition	주제전시 Main Exhibition	Handshake	03/04 (Sat) - 03/12(Sun)	10:00~18:00	Studio 1, 3, Loft & Basement Gallery
	특별전시 Special Exhibition	Shaking Heritage			
	전시 속 전시 Exhibition in Exhibition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			
	스페셜 프로젝트 Special Project	Creative Space			
워크숍 Workshop	1 라운드 1st Round	Hand with Heart	03/06 (Mon)	10:30-12:30	Studio 2
		RE;TABLE ISSUE.2 SOLDIER becomes WORKER		14:30-16:30	Studio 2
	2 라운드 2nd Round	RE;TABLE ISSUE.2 SOLDIER becomes WORKER	03/07 (Tue)	10:30-12:30	Studio 2
		Hand with Heart		14:30-16:30	Studio 2
컨퍼런스 Conference	강연 1 Lecture 1	Designing a Design School	03/08 (Wed)	10:30-12:00	Studio 2
	강연 2 Lecture 2	Tradition and Revolution - from Myth to Life	03/09 (Thu)	10:30-12:00	Studio 2
	강연 3 Lecture 3	Smart, Smarter and Smartest	03/10 (Fri)	10:30-12:00	Studio 2
	라운드테이블 1 Round Table 1	Collaboration of Creative Space	03/08 (Wed)	14:00-15:40	Studio 2
	라운드테이블 2 Round Table 2	Digital Jewelry ?	03/09 (Thu)	14:00-15:40	Studio 2
	라운드테이블 3 Round Table 3	Smart Design	03/10 (Fri)	14:00-15:40	Studio 2



© In-young YANG

MAIN EXHIBITION HANDSHAKE

MCBW 2017 주빈국 프로그램의 주제전시인 <HANDSHAKE>는 협업과 분업에 의한 한국 공예의 협력적 비즈니스 사례를 조명하는 전시이다. 협업은 개별적인 구성원이 협력하여 하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원시 공동체에도 있었고 봉건적 사회에도 있었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발생한 생산방법으로, 단순협업이 발달하면 분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생산과정에 기계가 도입됨에 따라 협업과 분업은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고, 우리는 이제 첨단 디지털기술과 광범위한 정보지식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는 4차 산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빅 데이터의 시대를 걷고 있는 지금, 왜 이 전시는 다시금 협업과 분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적 비즈니스에 주목한 것일까?

최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은 공동작업, 협력, 합작이라는 뜻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를 더 유연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HANDSHAKE> 전이 바라보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협업의 효과, 즉 서로 다른 정보와 지식, 기술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손을 잡음’으로써 개별적인 힘을 넘어서는 새로운 집단적인 힘을 산출하는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이었다.

공예, 패션, 디자인 등 각 분야 12팀, 6개 브랜드, 18명의 공예가와 장인, 현대미술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한 <HANDSHAKE> 전에서는 아이디어와 창의력, 디자인과 기술 등을 융, 복합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한 콜라보노믹스(collabonomics)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였다. 본 전시를 통해 공예와 제조산업의 현장에서 시대와 분야, 자원과 기술, 개인과 기업 및 기관을 가리지 않고 협업체제를 이룸으로써 다양성을 획득하고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한국의 협업 및 분업의 현재적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제전시
MAIN EXHIBITION
HANDSHAKE



- 참여작가
구세나+양인영 / 강금성+빈 콜렉션
강희정+최정유 / 김다라+김은학+모노폴리엠
김수영+조기상+고보형 / 이슬기+조성연
맷음+한지장인 / 래;코드+신혜림
최종관+이네꼬레+루이까또즈 / 이루나니+디자인 주
헬리독스+인텐시브+박성철 / 송봉규+김난희+이건무





"Handshake," the theme exhibition of MCBW 2017 partner program, shed light on Korean crafts' cooperative businesses fostered through cooperation and division of labor. Cooperation refers to completing a certain task with individual members working together, which can be traced back to the pristine communities and feudal societies. Being the first mode of production aimed at increasing the relative surplus value, cooperation evolved into division of labor in cooperative groups as time progresses. However,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gave rise to the concept of mass production, entities of cooperation and division of labor were replaced by machines from human. Now, we are seeing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age that prizes productivity gains backed by state-of-the-art digital technologies and exhaustive information knowledge. As we usher in the new era of technologies and big data, why does this exhibition bring to light the cooperative businesses driven by cooperation and division of labor?

"Collaboration," a trend cutting across a host of industries, is defined as joint work, cooperation or working together, that is often employed as a means of seeking diversity. Respect of diversity, which is the outcome of such collaboration, can enrich and add flexibility to the society. Handshake sought to explore how such collaboration, i.e. social constituents with a different set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technologies working together, can unleash a new collective power that is greater than individual power.

Bringing together the talents of 12 craft/fashion/design teams, 6 brands and 18 artisans, contemporary artists and designers, the Handshake exhibition presented 30 works of Collabonomics, an economic concept for creating innovative designs through the convergence of ideas, creativity, design and technologies. The exhibition provided a glimpse into the contemporary cases of cooperation and labor division in Korea, between different periods and areas, resources and technologies, and individuals and companies/institutions, with the goal of obtaining diversity and synergies.



PEOPLE WHO COLLABORATE

Sena GU+In-young YANG
Geum-seong KANG+VIIN COLLECTION
Hee-jung KANG+Jungyou CHOI
Dara KIM+Eun-hak KIM+MONOPOLY M
Soo-young KIM+Ki-sang GIO+Bo-hyung KOH
Seulgi LEE+Seong-yeon JO
MAEZM+Hanji makers
RE;CODE / Hea-lim SHIN
Jongkwan CHOI+INNE Coree+LOUIS QUATORZE
ELUNANI+DESIGN JOO
HELINOX+INTENXIV / Soung-chuel PARK
Bongkyu SONG+Nan-hee KIM+Kun-moo LEE





©Maz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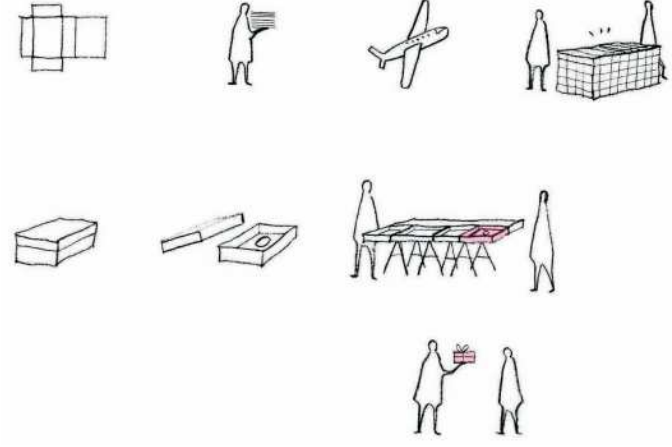
© 2013 TWOWAI

MCBW 2017의 테마는 The Smart Revolution이다. 공간 디자인을 맡은 나는 스마트 오브제 및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지만, 스마트 시대가 미치게 될 환경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 주변국으로 초대되어서 열리는 해외 전시이니 만큼, 한국이라는 고유한 문화적 상징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스마트 기기들이 가지고 오게 될 환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고민의 레이어를 겹쳐서 공간 구성을 하고자 했다.

한국이라고 하는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원형에서 펼쳐 보일지 생각하는 순간, 이번 전시에는 어떤지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한국적인 장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흔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 풍경의 표상이라하면 한국화 중에서 암산을 배경으로 폭포가 흐르고, 구름이 걸려있고, 계곡이 지나가는 유유자적한 풍경의 산수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설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풍경에서 느껴지는 어떤지 편안하고 여유로운 기분을 전시장을 찾는 외국 손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전시 작품에 침범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조색을 백색으로 하고, 한국적인 평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추상적인 장면이 되었으면 했다.

한편, 스마트 시대가 초래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환경적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박스’라고 하는 소재로 전체 공간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면, 스마트 시대는 이를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바꾸어 버렸다. 온라인에서 흥정하고 거래한 물건은 배송이라는 방식으로 건네 받게 되었다. 특히나, 배달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박스를 만드는 기술은 대단히 우수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이번 전시 공간은 박스라고 하는 컨셉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과 손으로 건네 받았던 물건들은, 박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랭귀지로 소통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약적인 상상도 하게 되었다. 계획된 일정한 사이즈의 박스는 여러개가 모여서 매스를 만들고, 단차를 이용하여 섬세한 지형을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박스에서 파생되어서 박스를 만드는 소재로 전시에 사용될 가구와 전시 기물들을 만들었다. 이것들은 대단히 퀄리티가 좋아서 전시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 기업의 생산력을 직간접적으로 원형에서 한껏 뽐낼 수 있기도 하였다. 종이 소재라 가볍고, 접으면 콤팩트해지는 박스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여기에 전시품을 담아 가서, 이 전시품이 판매가 될 때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박스가 포장되어, 담아서 건네주는 한국의 정스러운 마음도 전하고 싶었다.

또 한가지는, 박스는 대부분 재활용된 제지로 제작되지만, 배달이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다시 리사이클 되어서 탄생을 거듭하게 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이번 전시에서 박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간 박스들은 전시가 끝나고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철거되어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접혀져서 리사이클 센터로 운반되었다. 그리하여 원형에서 리사이클링 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번 전시가 한국과 독일을 더 끈끈하게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만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더욱 뜻 깊고 감격스러운 작업이었다.





©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PECIAL EXHIBITION SHAKING HERITAGE



©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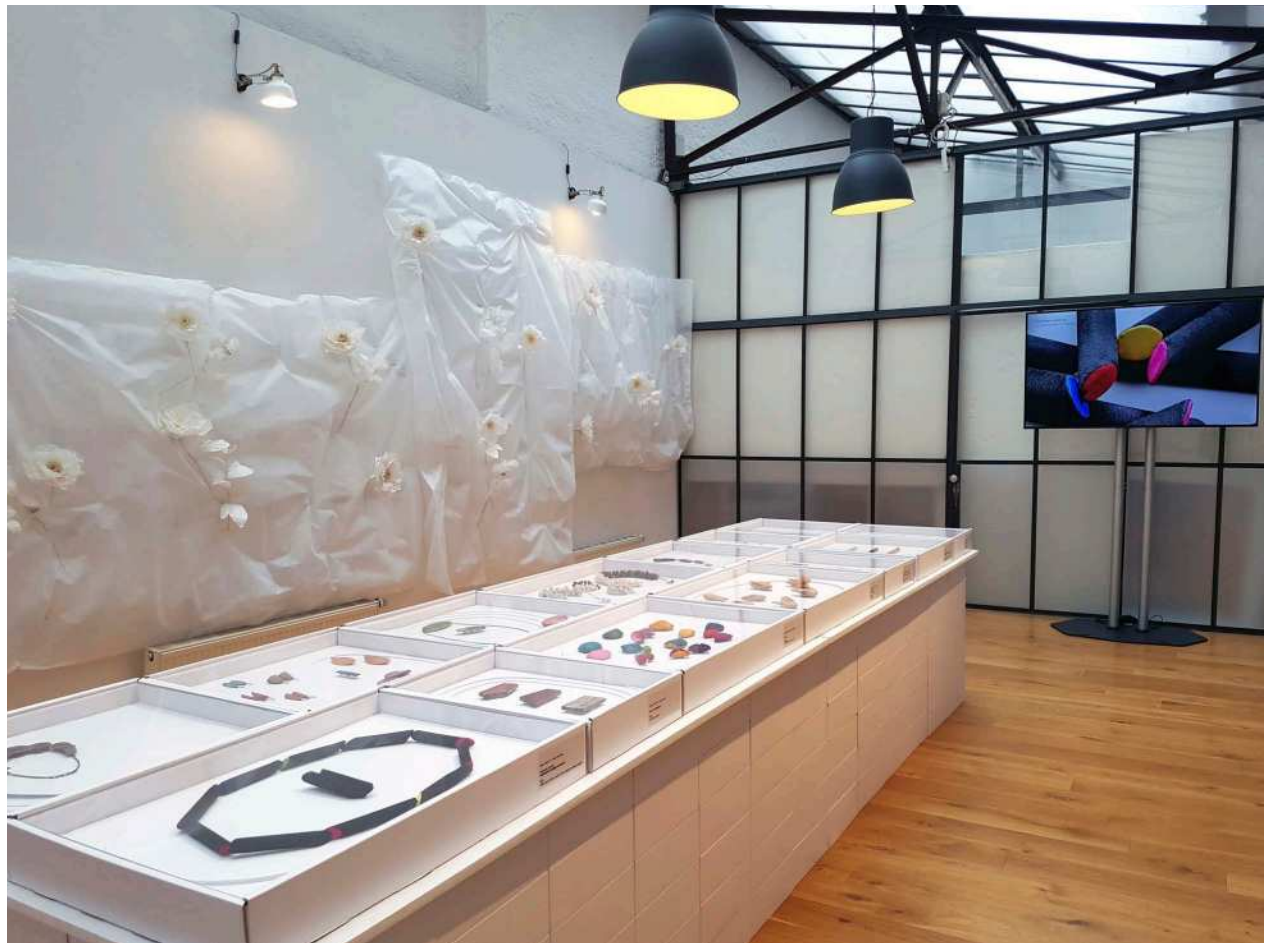
참여작가

안용희+조성호 / 정운복+조성호
이명애+오세린 / 오영순+김수연
박형민+황희진 / 박순덕+김연경
손영학+김계옥 / 유선희+신혜림
윤정숙+황희진 / 정을화
김태완 / 오진욱 / 심현석

MCBW 2017 주빈국 프로그램의 특별전시인 <SHAKING HERITAGE>는 사람을 통해 기술적 계승의 형태로 생활 속에서 이어져 온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전시이다. 국가의 기관이 매개가 되어 한국이 자랑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전통적 가치와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계승하면서, 오늘의 쓰임에 맞게 변형, 발전시켜 나가는 전통문화유산의 뉴 디자인 프로젝트 즉, 장인들과 디자이너들의 협업의 결과물들을 소개하였다.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기술을 중시하는 태도아래 생활 속에서 사람에서 사람을 통해 계승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적 기준에 의해 선택되고 수정됨으로써 계승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때문에 이 전시는 기술의 정점에 있는 전통공예 그 자체와 이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의 이수자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와 디자이너들의 제작 태도에 주목하였다.

11명의 공예가 및 디자이너들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10명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지닌 정교한 기술로 제작된 악세사리와 필기구를 선보였던 이 전시는 국립무형유산원(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과 한국문화재단(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의 협력프로젝트 결과물을 재구성하였다. 본 전시를 통해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결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뛰어난 기술을 확인하고, 오늘의 가치가 미래의 유형문화유산으로 남을 창조적 디자인의 공예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Shaking Heritage," a special exhibition of the MCBW 2017 partnerland program, highlighted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Kore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It introduced the outcomes of a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artisans and designers, "Traditional Culture Heritage New-Design Project," aimed at reshap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goods to fit today's purpo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enerally manifested and passed within a community, has been passed down from one person to another with the social etho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skills. Such a tradition can be chosen and modified for today's needs, testifying to its worth that lasts to this day. As such, this exhibition focused on the traditional craft itself at the peak of man's skills, and the approach to crafts taken by the successors of Kore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artisans and designers of various fields.

Bringing together the accessories and stationeries made with sensitizing designs of 11 artisans and designers and exquisite skills of 10 successors of national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exhibition was a recomposition of the joint project betwee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raditional Culture Heritage New-Design Project." See for yourself the delicate skills embedded in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ulmination of human's creative talent, and encounter craft products of creative designs whose value of today will make them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omorrow.

PEOPLE WHO CREATE NEW VALUES

Yong-hee AHN+Sung-ho CHO
Woon-bok JEONG+Sung-ho CHO
Myeoung-ae LEE+Se-rin OH
Young-soon OH+Soo-yeon KIM
Hyeong-min PARK+Hee-jin HWANG
Sun-doak PARK+Yeon-kyung KIM
Young-hak SON+Kye-ok KIM
Seon-hee YU+Hea-lim SHIN
Jong-sook YUN+Hee-jin HWANG
Eul-hwa JEONG / Tae-ywan KIM
Jin-wook OH / Hyun-seok SIM



인간의 감각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생겨난 센서는 최근 정보나 수치를 스스로 계산, 판단, 처리하는 보다 높은 기능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센서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초의 정보 판단과 수치의 계산 및 처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수 많은 디지털 제품 안에 분명 아날로그, 또는 아날로그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된 한국의 산업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전은 MCBW 2017 주빈국 프로그램의 전시 속 전시로, 인터넷 사물 기반의 다양한 첨단 디자인 사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EXHIBITION IN EXHIBITION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

아날로그의 제작 시스템부터, 킥 스타터를 통해 펀드를 조성한 스타트업, iF Award와 Red Dot Award 등에서 스마트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디자인과 제품 12점을 선보인 본 전시에서는 아날로그적 사물에 다양한 첨단 매체를 적용함으로써 진화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들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며 나아가 첨단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적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전시 속 전시
EXHIBITION IN EXHIBITION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



참여작가 및 업체

현광훈 / 이정형 / BKID_송봉규
탱그램 팩토리 / 디자인 류 / 닷 인코퍼레이션
휴맥스 / 이눔들연구소 / 루미르
파트론 / 요크 / 직토



© BKID



PEOPLE WHO DESIGN SMART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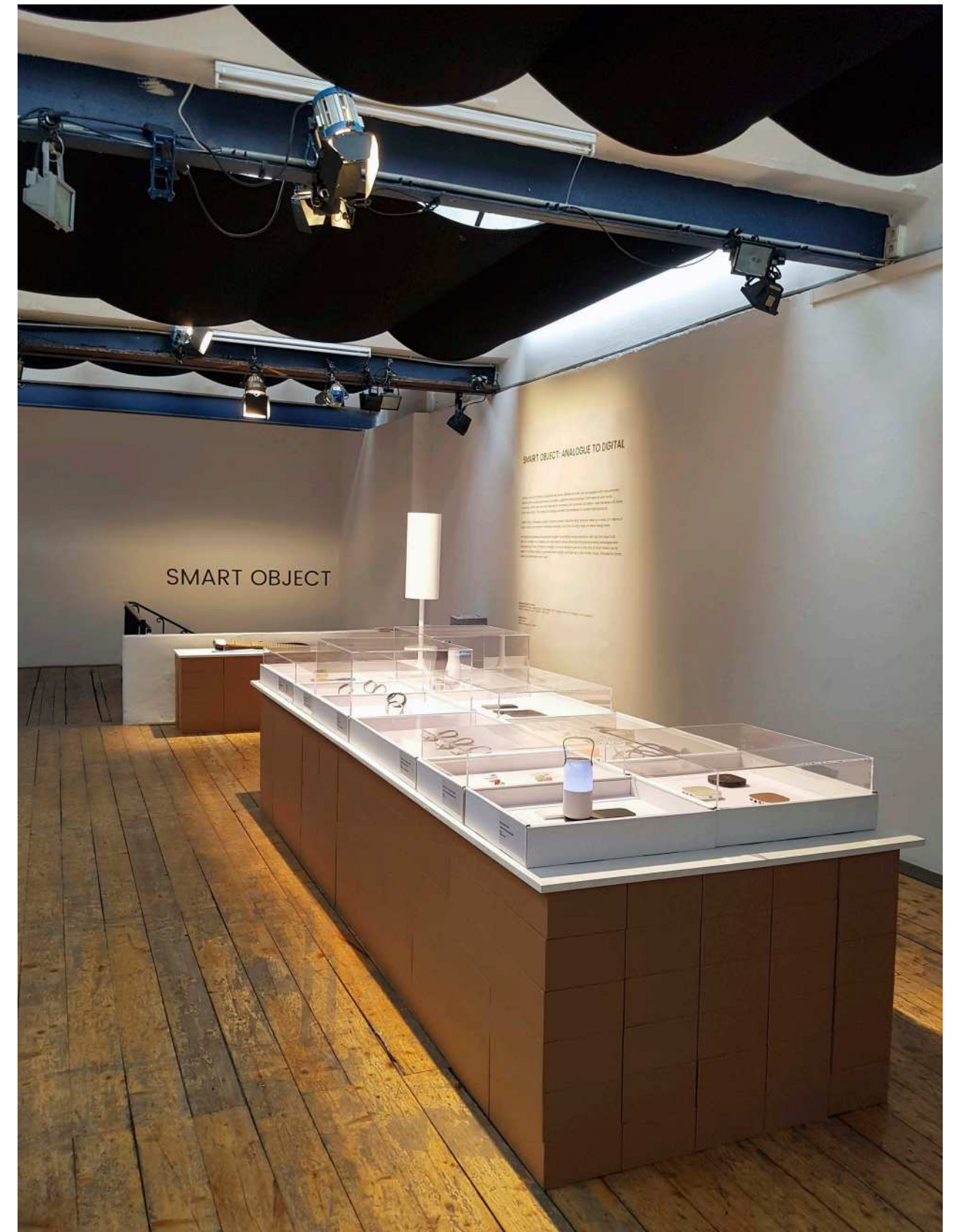
Kwang-hun HYUN / Jung-hyung LEE
BKID_Bongkyu SONG / Tangram Factory. Inc
Design mu / Dot Incorporation
HUMAX / Innomdle Lab
Lumir / Partron / YOLK / ZIKTO

Sensors, a technical means of expanding the sensory abilities of human, are now equipped with more advanced features which include autonomous calculation, judgement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or even number crunching. However, the very first judgement of information and numerical calculations needed to make the sensor work starts in the human brain. This implies that analogue elements co-exist in countless digital products.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 presenting Korea’s industrial design products made with a variety of mediums of today’s world, was an exhibition in exhibition under the MCBW 2017 partner program, showing a broad mix of cutting-edge, IoT-based design works.

The exhibition showcased the production system incorporating analogue elements, start-ups that raised funds from kick starters, and 10 design works and products whose smart ideas and groundbreaking technologies were recognized by iF Award and Red Dot Awards. It was a chance to see how a wide array of state-of-the-art medium can be applied to analogue objects to generate better products, and how they, i.e. the futuristic design, stimulate the human senses and materialize societal values.

전시 속 전시
EXHIBITION IN EXHIBITION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





SPECIAL PROJECT CREATIVE SPACE: KOREAN AND GERMAN DESIGN FOR SMART REVOLUTION

본 프로젝트는 서울과 뮌헨에서 각각 활동하는 한국과 독일의 12개 그래픽디자인 팀의 콜라보레이션의 전 과정과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이들은 MCBW(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 2017의 주제인 Smart Revolution을 대상으로 협업 포스터의 제작을 위해 상호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전제로 주빈국의 주제인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을 직접 실천하였다. 전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협업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함께 전시, 본 프로젝트의 실행 전후로 진행된 양국 그래픽디자이너들의 활동들을 MCBW 2017 행사기간 전후로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였다.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각각의 팀들은 MCBW 2017 주제인 "Design Connects - The Smart Revolution" 아래 스마트 피플,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시티, 스마트 경제, 스마트 브랜드 등에 대해 두 개의 포스터(DIN A0 = 84.1×118.9cm)를 디자인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조건은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동 협력 결과를 포스터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팀들은 두 장의 포스터가 서로 반응하거나 상호 작용함으로써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도록 해야 했다. 또한 양국의 팀들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 작업을 체계화 시켜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결과물은 포스터만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와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는 중견디자이너들의 태도를 자극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디자인연맹의 회장이자 Kochan & Partner의 대표인 보리스 코헨(Boris Kochan)과 김창식 교수의 기획으로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바이에른 디자인이 협력해 진행하였다.



참여 디자이너 및 스튜디오

장성환 (디자인스튜디오 203)+홀거 펠텐, 카린 회플링 (로즈 피스톨라)
조현 (스튜디오 S/O 프로젝트)+호르스트 모저 (독립 미디어 디자인)
홍성택 (홍디자인)+프랭크 바그너 (hw 디자인)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크리스티나 소피 존 (MHDK)
강병원+라스 함센 (엘빌 브랜드 디자인)
안상수 (파티)+안나 레나 본 헬도르프
김주성 (명지대학교 & VIDAK)+올리버 링케 (레이지독스 타이포 스튜디오)
김창식 (산호세주립대학교)+툼 이싱 (헤르베르그 웨일란드)
서기훈 (가천대학교, 아이앤아이 디자인)+카트린 헤르스베르거
석금호 (산돌 커뮤니케이션)+보리스 코헨 (보리스 앤 파트너)
정석원 (X4 디자인)+스테판 보그너 (스테판 보그너 창작스튜디오)
장동련, 조은지, 박지연, 강부경, 최보윤, 이진아
(홍익대학교 BME Design LAB.)+헨리케 그로서,
데니스 애비셔 트레보, 안젤로 레쎬가티, 플로리안 라이너 (KMS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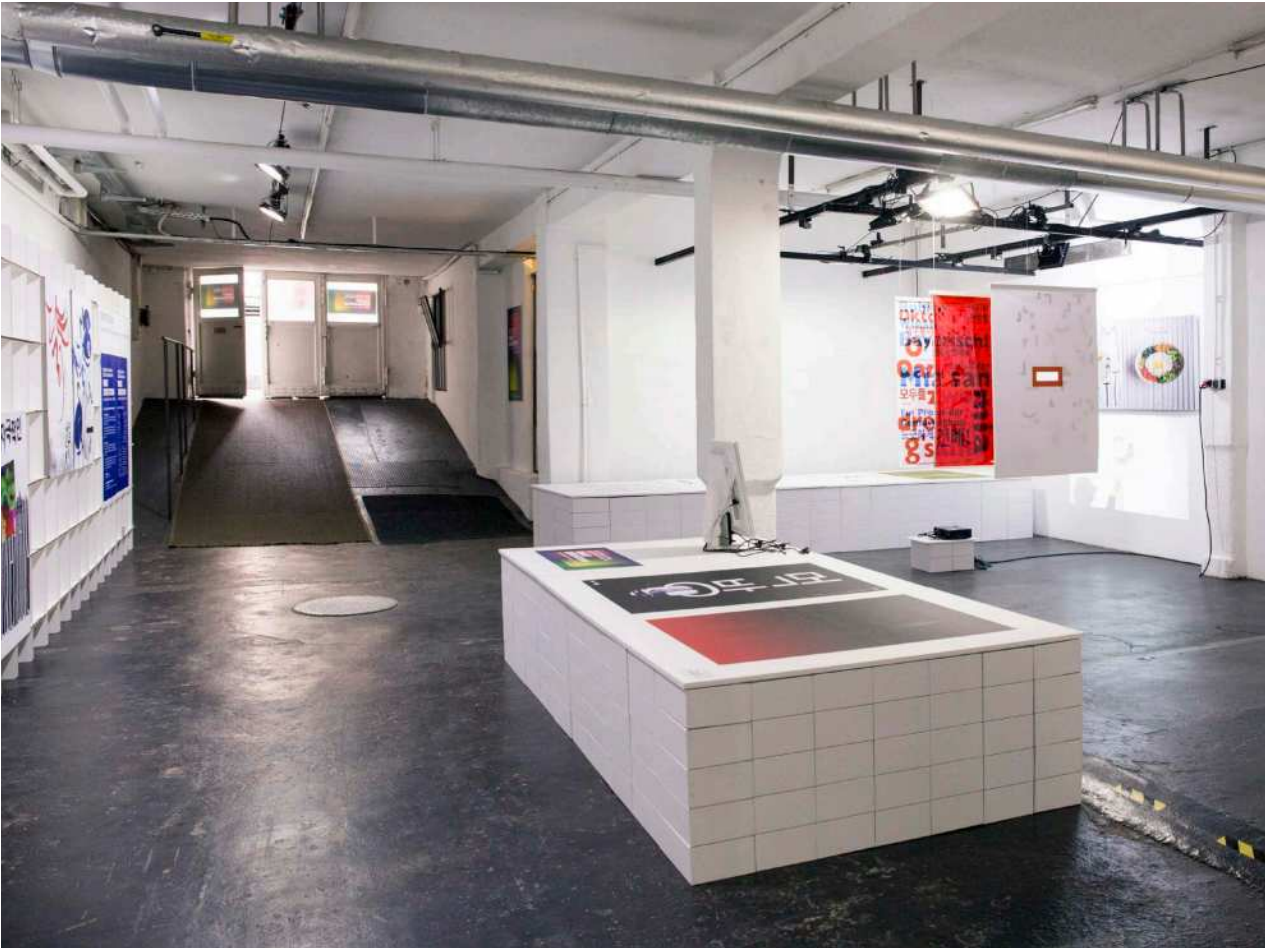
큐레이터

보리스 코헨 (독일디자인연맹의 회장, Kochan & Partner 대표)
김창식 (산호세주립대학교 교수)

참조 웹 사이트

www.bayern-design.de
www.kochan.de/
www.kcdf.kr
www.mcbw2017korea.com

스페셜 프로젝트
SPECIAL PROJECT
CREATIVE SPACE



This project was a display showing the whole process and results of the collaboration of 12 graphic design teams in Korea and Germany which are working in Seoul and Munich respectively. Based on the theme of Smart Revolution which was the subject of MCBW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on the premise that they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for the creation of a cooperative poster, the MCBW 2017 partner country's theme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practiced directly. The exhibition displayed not only the results but also the images containing the collaboration process of this project together and the activities of the graphic designers of both countrie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execution of this project were available through MCBW 2017 all the available channels around the event period.

Each team that interacted with each other had two participants (DIN A0 = 84, 1 × 118, 9 cm), including Smart People, Smart Object, Smart City, Smart Economy, and Smart Brand under MCBW 2017 theme Design Connects - The Smart Revolution. The only condition of this project was that it should clearly reflect the results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different cultures in the poster production process. And each team had to ensure that the two players responded to each other and interacted to form a harmonious whole, and how the teams in both countries would work on this project. They must decide whether or not they should systematize the results. The results were not only the posters, but also th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mutual cooperation. This project was co-organized by the Korean Craft & Design Foundation and bayern design of the project by Boris KOCHAN, President of Kochan & Partner, and Professor Chang-sik Kim.



PEOPLE WHO COLLABORATE

Sung-whan JANG (Design Studio 203)+
Holger FELTEN, Karin HOEFLING (ROSE PISTOLA)+
Hyun CHO (Studio S/O Project)+
Horst MOSER (Independent Medien Design)+
Sung-taek HONG (Hongdesign)+
Frank WAGNER (hw design)+
Nami RHEE (Studio Baf Design)+
Christina Sofie JOHN (MHDK MILCH+HONIG)+
Byung-in KANG+
Lars HARMSSEN (Melville Brand Design)+
Sang-soo AHN (PaTI)+Anna Lena VON HELLDORF
Joo-sung KIM (Myungji College & VIDAK)+
Oliver LINKE (Lazydogs Typefoundry)+
Chang-sik KIM (San Jose State University)+
Tom ISING (Herburg Weiland)+
Ki-heun SHUR (Gacheon University / I&I design)+
Catherine HERSBERGER
Paul Geumho SEOK (Sandoll Communications)+
Boris KOCHAN (Kochan & Partner)

Suk-won JUNG (X4 Design)+
Stefan BOGNER (Stefan Bogner Creative Studios)+
Don-ryun CHANG (Hongik University, BME Design LAB.)+
Henrike GROSSER, Denise AEBISCHER TREBO,
Angelo RESSEGATTI, Florian RAINER (KMS TEAM)

CURATOR

Boris KOCHAN (Kochan & Partner)
Chang-sik KIM (San Jose State University)

REFERENCE WEB SITES:

www.bayern-design.de
www.kochan.de/
www.kcdf.kr
www.mcbw2017korea.com

주제전시
MAIN EXHIBITION
HANDSHAKE



이슬기+조성연
Seulgi LEE+Seong-yeon JO
U : 송아지 엉덩이에 뽀난다.
U : 달걀에도 뽀가 있다.
U : 낮 놓고 ㄱ자도 모른다.



김은학+모노폴리엠
Eun-hak KIM+MONOPOLY M
다이닝 테이블과 리참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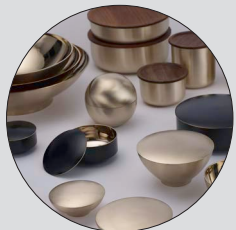
구세나+양인영
Sena GU+In-young YANG
정물화



구세나
Sena Gu
Imagine about things



김수영
Soo-young KIM
안성맞춤유기



김수영+조기상
Soo-young KIM+Ki-sang GIO
아름, 바름 유기 시리즈



고보형
Bo-hyung KOH
커틀러리 시리즈



고보형
Bo-hyung KOH
촛대



김수영+고보형
Soo-young KIM+Bo-hyung KOH
스윙볼, 워머, 촛대



송봉규+김난희+이건무
Bongkyu SONG+Nan-hee KIM+Kun-moo LEE
1인용 다기세트



최정유+강희정
Jungyou CHOI+Hee-jung KANG
자개브로치



강희정
Hee-jung KANG
자개장



강금성
Geum-seong KANG
바람개비 조각보 침구 시리즈



맷음
Maezm
빛을 담은 병풍



맷음
Maezm
한지 플라스틱 의자



헬리녹스+인텐시브
HELINOX+INTENXIV
검정 누비 의자와 테이블



헬리녹스+인텐시브
HELINOX+INTENXIV
모시 조각보 의자와 테이블



박성철
Soung-chuel PARK
Vessel-1



최종관+이네 꼬레+루이까또즈
Jongkwan CHOI+INNE Coree+
LOUIS QUATORZE
멜라니 숄더백_대나무



최종관+이네 꼬레+루이까또즈
Jongkwan CHOI+INNE Coree+
LOUIS QUATORZE
멜라니 토드백_빙결



최종관+이네 꼬레+루이까또즈
Jongkwan CHOI+INNE Coree+
LOUIS QUATORZE
보르도 박스백



이루나니+디자인 주
ELUNANI+DESIGN JOO
화문석 미니백



이루나니+디자인 주
ELUNANI+DESIGN JOO
화문석 클러치백



김은학+김다라
Eun-hak KIM+Dara KIM
Modern Times



래;코드
RE;CODE
Hanbok by RE;CODE



래;코드
RE;CODE
Farmer & Dreamer



래;코드
RE;CODE
RE;CODE Signature



신혜림
Hea-lim SHIN
시간의 비가 내린다.

특별전시
SPECIAL EXHIBITION
SHAKING HERITAGE



유선희+신혜림
Seon-hee YU+Hea-lim SHIN
색동을 담은 누비 장신구



오영순+김수연
Young-soon OH+Soo-yeon KIM
화훼도 목걸이



박순덕_김연경
Sun-doak PARK+Yeon-kyung KIM
브로치



정운복+조성호
Woon-bok JEONG+Sungho CHO
무제 브로치



손영학+김계옥
Young-hak SON+Kye-ok KIM
無



안용희+조성호
Yong-hee AHN+Sungho CHO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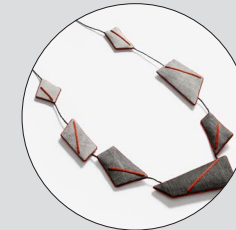
박형민+황희진
Hyeong-min PARK+Heejin HWANG
눈꽃



윤정숙+황희진
Jong-sook YUN+Heejin HWANG
Sense



윤정숙_황희진
Jong-sook YUN+Heejin HWANG
나이트



이명애+오세린
Myeoung-ae LEE+Se-rin OH
인연생



정을화
Eul-hwa JEONG
일품일필, 장도패필, 장도목필



김태완
Tae-ywan KIM
만년필



오진욱
Jin-wook OH
은장도 만년필



심현석
Hyun-seok SIM
죽장도형 볼펜

전시 속 전시
EXHIBITION IN
EXHIBITION
SMART OBJECT:
ANALOGUE TO DIGITAL



이정형
Jung-hyung LEE
더 펜 기타



현광훈
Kwang-hoon HYUN
Heartbeat camera 6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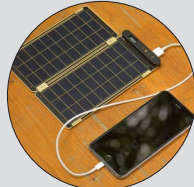
현광훈
Kwang-hoon HYUN
Caliber.33



닷 인코퍼레이션
Dot Incorporation
닷 워치



루미르
Lumir
루미르 C



요크
YOLK
솔라 페이퍼



BKID_송봉규
BKID_Bongkyu SONG
사운드 보틀



탱그램 팩토리
Tangram Factory Inc.
스마트 로프



파트론
Partron Co., Ltd.
써모 캡슐(PTD-100)



직토
ZIKTO
직토 워크



이놈들 연구소
Inomdlelab
시그널(SGNL)



휴맥스
HUMAX
스마트 OTT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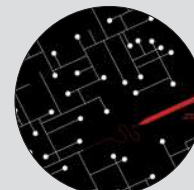


디자인 뮤
Design mu
Air-Purifer

스페셜 프로젝트
SPECIAL PROJECT
CREATIVE SPACE



장성환 (디자인스튜디오 203)
Sung-whan JANG (Design Studio 203)



조현 (스튜디오 S/O 프로젝트)
Hyun CHO (Studio S/O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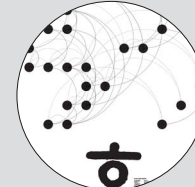
홍성택 (홍디자인)
Sung-taek HONG (Hongdesign)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Nami RHEE (Studio B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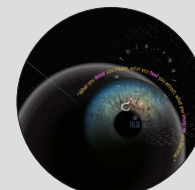
강병인 (캘리그래퍼)
Byung-in KANG (Calligrap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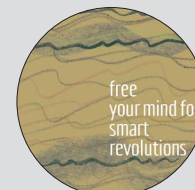
안상수 (파티)
Sang-soo AHN (P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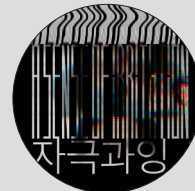
김주성 (명지대학교 & VIDAK)
Joo-sung KIM (Myungji College & VIDAK)



김창식 (산호세주립대학교)
Chang-sik KIM (San Jose State University)



서기훈 (가천대학교, 아이앤아이 디자인)
Ki-heun SHUR
(Gacheon University, I&I design)



석금호 (산돌 커뮤니케이션)
Paul Geumho SEOK
(Sandoll Communications)



정석원 (X4 디자인)
Suk-won JUNG (X4 Design)



장동련, 조은지, 박지연, 강부경, 최보윤, 이진아
(홍익대학교 BME Design LAB.)
Don-ryun CHANG
(Hongik University, BME Design LAB.)

WORKSHOP 1

HAND WITH HEART

일시 | 1차 : 2017년 3월 6일 (월), 10:30-12:30

2차 : 2017년 3월 7일 (화), 14:30-16:3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버선 (작은 주머니) 만들기

진행자 | 강금성 (빈 컬렉션 대표, 섬유공예가)

Period | 1st : March 6 (Mon), 10:30-12:30

2nd : March 7 (Tue), 14:30-16:3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Making a Beoseon

Lecturer | Geum-seong KANG

(CEO of VIIN Collection, Fiber Artist)



“HAND with HEART”는 한국의 전통적인 손바느질 기법을 활용하여, 발을 따뜻하게 감싸면서도 모양을 맵시 있게 만들어주는 한국 고유의 덧신 일종인 ‘버선’을 모티브로 생활에 유용한 장식 소품을 만들어보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전시 <HANDSHAKE>에 참여하는 강금성 작가가 진행하였다.

한국 여인들의 전통 규방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 워크숍에서는 쓰다 남은 천 조각을 모아두었다가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던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장인정신이 깃든 작가의 제작방식을 통해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생활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생활소품을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강금성 & 빈 컬렉션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에서 자란 강금성 작가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 이어받은 삶의 지혜와 예술적 안목을 바탕으로 현대 침구와 다양한 패브릭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공예가이다. 그가 만든 수공예 브랜드 빈 컬렉션은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 바느질 기술로 전통공예의 기품을 지키면서도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현대인의 생활에 어울리는 생활용품들을 기획, 제작, 판매하고 있다.

www.viin.co.kr



워크숍
WORKSHOP
HAND WITH HEART,
RE;TABLE ISSUE.2
SOLDIER BECOMES
WORKER



“HAND with HEART” was a hands-on workshop where participants can make practical accessories with “Beoseon,” a type of paired socks worn with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at were made for protection, warmth and style, by means of the Korean traditional needlework. The program was led by Geum-seong KANG, who took part in the theme exhibition, “Handshake.” Bringing Korean women’s traditional patchwork and needlework to light, the workshop provided a forum to share the wisdom of women of the Joseon Dynasty who used to gather leftover fabrics to create practical accessories. Also, participants made their own accessories to adorn their home or keep small things, employing the fabrication methods of professional artisans.

ABOUT GEUM-SEONG KANG & VIIN COLLECTION

Geum-seong KANG, who grew up with four generations under one roof, is an artisan dedicated to making contemporary beddings and a variety of fabric products based on the wisdom and artistic insights passed down from her grandmother and mother. Her handicraft brand, “VIIN Collection,” designs, produces and markets accessories which have both the grace of traditional crafts and the witty ideas of the contemporary world, perfected with the best-in-class natural materials and painstaking needlework skills.

www.viin.co.kr

WORKSHOP 2 RE;TABLE ISSUE.2 SOLDIER BECOMES WORKER

일시 | 1차 : 2017년 3월 6일 (월), 14:30-16:30
2차 : 2017년 3월 7일 (화), 10:30-12:3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반질고리 (바느질 키트) 만들기
진행자 | 래;코드 (업 사이클링 브랜드)

Period | 1st : March 6 (Mon), 14:30-16:30
2nd : March 7 (Tue), 10:30-12:3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Making a Sewing Box
Lecturer | RE;CODE (Up-cycling Brand)



RE;CODE
THIS IS NOT JUST FASHION



“RE;TABLE ISSUE.2 SOLDER Becomes WORKER”는 잉여 생산된 군복과 군용품을 이용해 생활소품들 만들어 가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전시 <HANDSHAKE>에 참여하는 패션브랜드 RE;CODE 팀이 진행하였다.

전쟁과 분단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한 이 워크숍은 잉여의 군용품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물건으로 재탄생 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쟁과 평화, 환경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래;코드

한국의 산업소재, 화학, 필름/전자재료, 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FnC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패션 브랜드 팀으로 안타깝게 버려지는 제품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여 새로운 제품으로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기획, 생산, 판매하고 있다.

www.re-code.co.kr

워크숍
WORKSHOP
HAND WITH HEART,
RE;TABLE ISSUE.2
SOLDIER BECOMES
WO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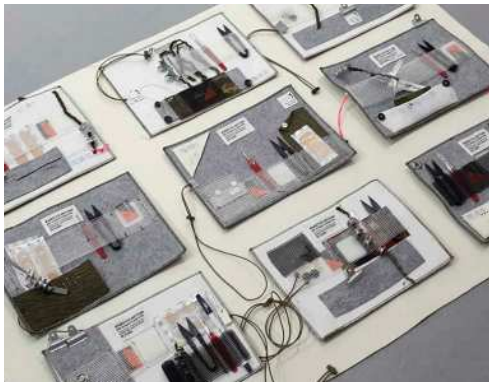
“RE;TABLE ISSUE.2 SOLDER Becomes WORKER”was a participatory workshop creating protective everyday goods by using military surplus uniforms and supplies. The program was led by the RE;CODE Team, a fashion brand participating in the theme exhibition, “Handshake.”

Against the historic backdrop of Korea and Germany, both marked by the war and national division, the workshop was an opportunity to see and learn the process of military surplus clothing and supplies being transformed into a whole new item that caters to people of various occupations. In addition, it was also set the stage for dialogues on war, peace, environment and the value of sharing.

ABOUT RE;CODE TEAM

RE;CODE Team is a fashion brand team under FnC Division of Kolon Industries Co., Ltd, Korea’s leading producer of industrial materials, chemicals, film/electronic materials and apparel. The Team is responsible for planning, producing and selling upcycled products, which refer to products of creative reuse that are transformed from unwanted products or wastes.

www.re-code.co.kr



CONFERENCE _ LECTURE COLLECTIVE DIALOGUE 1 : DESIGNING A DESIGN SCHOOL

일시 | 2017년 3월 8일 (수), 10:30-12:0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디자인 학교를 디자인하다

강연자 | 최문경 (파티 버금, 타이포그래픽디자이너)

Period | March 8 (Wed), 10:30-12:0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Designing a Design School

Lecturer | Kelly Moonkyung CHOI
(Deputy Director of PaTI, Typography Designer)



“파주출판도시에 자리한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줄여서 ‘파티 PaTI’)는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교육협동조합이다. 파티는 디자인 교육 자체를 디자인 대상으로 바라본다. 동아시아적 지혜에 바탕을 두고 학생들과 스승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학교에서는 커리큘럼부터 학교 문화, 행사, 배움의 공간, 자기 책상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이루는 모든 것이 그들의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삶과 밀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배우미들은 경쟁이 아닌 눈높이를 낮추어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있어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문경은 미국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고 스위스 바젤 디자인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였다. 이후 홍익대학교에서 바젤디자인학교 디자인교육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시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스위스와 한국에서 디자이너 및 디자인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직접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학교 교재 및 출판 디자인, 도시 공공 디자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훈련하는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Paju Typography Institute)의 버금이를 맡아 디자인 인재들을 육성하며, 이들을 위한 디자인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강연
CONFERENCE _ LECTURE
COLLECTIVE DIALOGUE



“Paju Typography Institute(“PaTI”), located in Paju Book City, is an education cooperative with an extensive network at home and abroad. PaTI considers design education itself as the object of design. Students and teachers build up the institute together based on the wisdom of East Asia, and everything that forms a part of the institute, from the curriculum, the culture, events, spaces of learning to individual desks, is designed by the members of the institute. In the belief that design should be embedded in the everyday life, the students seek to utilize design to enrich their lives, instead of simply competing with one another.”

KELLY MOONKYUNG CHOI earned a BFA in graphic design in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and studied typography in the Basel School of Design, Switzerland. CHOI then acquired a master's degree in visual design in Hongik University with her thesis on design education in the Basel School of Design. She served as a designer and researcher in design institutes in Switzerland and Korea, and ran a design studio, designing textbooks, publications and public urban spaces. At present, CHOI is the deputy director of Paju Typography Institute, committed to nurturing students' talents and delving into design education.



CONFERENCE _ LECTURE COLLECTIVE DIALOGUE 2 : TRADITION AND REVOLUTION - FROM MYTH TO LIFE

일시 | 2017년 3월 9일 (목), 10:30-12:0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전통과 혁신 - 신화에서 일상으로

강연자 | 민복기 (예술장신구 작가, 서울대학교 교수)

Period | March 9 (Thu), 10:30-12:0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Tradition and Revolution _
From Myth to Life

Lecturer | Bog-Ki MIN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Jewelry maker)



“역사적으로 공예가들은 미래와 과거가 긴장하는
장 위에서 균형과 통합을 꿈꾸어왔다. 특히 한국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으로 과거의 전통이 소실된 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한국공예가들이
바라보는 전통과 현재 양 방향 모두에 대한 낯설음은
다양한 지향성을 지닌 정책과 집단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화된 집단들이 각각의 미학적 담론들을 넘어 집단적인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과정이다. 지난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승공예
이수자들과 현대공예가들이 시작한 과거와 현재의
화해이자 새로운 집단적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민복기는 서울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독일
포르츠하임 조형대학교에서 장신구와 일상문화사물을
공부하였다. 졸업 후에는 전통적인 장인정신에 기반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장신구를 제작, 판매하는 독일 게뮌르더
샤프라트(Gebrüder Schaffrath GmbH)에서 주얼리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중국 청화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장신구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한 ‘Traditional Culture Heritage
New-Design Project’에 디렉터를 역임하였다. 장신구를
제작하는 공예가이자 서울대학교 금속공예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민복기는 전통공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현대적 계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강연
CONFERENCE _ LECTURE
COLLECTIVE DIALOGUE



“Historically, craftsmen and artisans have
envisaged a balance between, and the integration
of, the future and the past, which seemed to
be mutually conflicting elements. In particular,
Korea suffered considerable damage to its
cultural traditions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War, and accepted a new culture
thereafter. Against this backdrop, traditions as
well as the present must come as rather strange to
Korean artisans, and this has spawned a number of
policies and groups with a variety of directions and
objectives. It would be thus fascinating for these
fragmented groups to find new wisdom through
a collective dialogue that stretches beyond their
individual aesthetic debates. The previous project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resents the
reconciliation of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a
journey to find new collective wisdom, embarked
on by th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isans.”

BOG-KI MIN studied metal craf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learned accessories and objects of
daily life in Pforzheim University School of Desig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MIN designed jewelry
in Gebrüder Schaffrath GmbH, a German diamond
manufacturer known for production and sales of
innovative jewelry based on traditional craftsmanship.
He was invited by Tsinghua University, China to lecture
on “Boundaries of Jewelry,” and held a director
position in “Traditional Culture Heritage New-Design
Project” recently organized by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hile making accessories and jewelry
himself, MIN also teaches metal craf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reassessing the value
of traditional crafts, and identifying ways and visions
for traditional crafts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s.



CONFERENCE _ LECTURE COLLECTIVE DIALOGUE 3 : SMART, SMARTER AND SMARTEST

일시 | 2017년 3월 10일 (금), 10:30-12:0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스마트하게, 더 스마트하게, 가장 스마트하게

강연자 | 나건 (레드 닷 어워드 심사위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Period | March 10 (Fri), 10:30-12:0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Smart, Smarter and Smartest

Lecturer | Dr. Ken NAH (Professor of IDAS,
Red Dot Design Award Judge)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환경을 우리의 삶에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똑똑한’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이 시스템(System)내에서 생존해 온 시스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수동(manual)으로만 하던 일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반자동(Semi-Automatic), 더 나아가 자동(Automatic)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최적화하였다. Smart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간은 ‘똑똑’하고, 기계는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것은 인간과 기계의 대화를 통한 공존이다.”

나건은 한양대학교와 KAIST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하였으며, 미국 TUFTS 대학교에서 Engineering Design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디자인 발전소>를 비롯하여 다수의 디자인 관련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저서들은 대만 및 중국어로도 번역, 출판되었다. 레드닷 어워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건 박사는 한국의 산업디자인과 스마트한 제조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LG, 삼성 등 국내 유명기업의 CEO 및 관련분야 전문가,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 융복합 디자인, 디자인 경영 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드문 공학도 출신의 디자인 교수이며, 현재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연
CONFERENCE _ LECTURE
COLLECTIVE DIALOGUE



“We, humans are originally smart beings who adapt to the given environment and know how to use it well for our lives. This is possible because humans are systematic-self having survived within various systems. At first, we had lived in the manual system followed by semi-automatic and automatic system as technology advances by optimizing the role of humans. Now we face totally new paradigm as the emergence of the era smart technology. In the forthcoming environment with ‘smart’ humans ‘smarter’ machines, the only way we become ‘the smartest’ is to coexist with machines through a dialogue.”

DR. KEN NAH studied industrial engineering in Hanyang University and KAIST, and earned a doctorate degree in engineering design in Tufts University, US. NAH is the author of several design publications, including “Design Plant,” which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aiwan and China. An international jury member of Red Dot Awards, NAH has a keen interest in Korea’s industrial design and smart production system, and occasionally lectures on such topics as creative thinking, convergence design and design management for CEOs of household names such as LG, Samsung, etc. and design practitioners, students and businessmen. A design professor with engineering expertise, a hard-to-find talent in Korea, NAH currently teaches in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in Hongik University.



CONFERENCE _ PODIUM DISCUSSION ROUND TABLE 1 : COLLABORATION OF CREATIVE SPACE

일시 | 2017년 3월 8일 (수), 14:00-15:4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의 협업
사회자 | 김창식 (산호세주립대학교 교수)
패널리스트 | 석금호 (산돌 커뮤니케이션 대표)
 보리스 코헨 (독일디자인연맹 회장)
 톰 이싱 (헤르베르그 베일란드 대표)

Period | March 8 (Wed), 14:00-15:4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Collaboration of Creative Space
Moderator | Chang-sik KIM
 (Professor of San Jose State University)
Panelist | Paul Geumho SEOK
 (CEO of Sandoll Communications)
 Boris KOCHAN (President of the German
 Graphic Design Association)
 Tom Ising (CEO of Herberg Weiland)

라운드테이블 1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주빈국 행사의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Creative Space'라는 콜라보레이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개인, 지역 사회, 기업 간의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더불어 스마트
 시대, 한국과 독일 그래픽디자인의 현황과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비전을 실천적이며 상호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In Round Table 1, graphic designers from
 South Korea and Germany shared experiences
 of collaboration "Creative Space" which was
 conducted as a part of special project for
 the MCBW 2017 partner country events, and
 constructe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ompanies to
 exchange their views on. In addition, in the
 smart era, they discussed the present situation
 of graphic design in Korea and Germany and the
 vision as a graphic designer from interactive and
 practice-oriented perspective.



일시 | 2017년 3월 9일 (목), 14:00-15:4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디지털 장신구?
사회자 | 민복기 (서울대학교 교수)
패널리스트 | 고보형 (한양대학교 교수)
 페트라 홀서 박사 (디자인박물관 시니어 큐레이터)
 크리스틴 뢰디케 (포르츠하임 조형대학교 교수)
 파울 데레즈 (RA 갤러리 대표, 현대장신구 작가)

Period | March 9 (Thu), 14:00-15:4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Digital Jewelry?
Moderator | Bog-ki MIN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ist | Bo-hyung KOH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Dr. Petra Holser (Senior Curator of
 Pinakothek der Moderne)
 Christine Rudike (Professor of Pforzheim
 University School of Design)
 Paul Derrez (Director of RA gallery,
 Contemporary Jewelry Artist)

라운드 테이블 2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현대장신구
 분야 전문가들이 디지털 장신구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쟁점은 디지털 기술과 재료를 이용한
 장신구의 혁신과 예술성에 관한 것으로 예술장신구와
 패션 장신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매체적 관점 등 장신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방향에 관한 교육자, 큐레이터,
 작가로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At Round table 2 discussed global trends of
 digital jewelry by experts in the contemporary
 jewelry field in Korea and Germany. The main
 points of debate wer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rtistry of ornaments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materials, not only changes of art jewelry and
 fashion jewelry but also past and present of jewelry
 such as re-mediation, and future exchanged
 diverse opinions as directional educators, curators
 and artists.

CONFERENCE _ PODIUM DISCUSSION ROUND TABLE 2 : DIGITAL JEWELRY?





CONFERENCE _ PODIUM DISCUSSION ROUND TABLE 3 : SMART DESIGN

일시 | 2017년 3월 10일 (금), 14:00-15:4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2

주제 | 스마트 디자인

사회자 | 나건 박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

패널리스트 | 송봉규 (BKID 대표, 프로덕트 디자이너)

마이클 란츠 (디자인어페어 대표)

피터 나우만 (뮌헨응용과학대학교 교수)

Period | March 10 (Fri), 14:00-15:40

Location | Goldberg Studio 2

Theme | Smart Design

Moderator | Dr. Ken NAH

(Professor of Hongik University IDAS)

Panelist | Bongkyu SONG (CEO of BKID)

Michael Lanz (CEO of designaffairs)

Prof. Peter Naumann (Mun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라운드 테이블 3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산업디자인 전문가들이 디지털 패러다임의 디자인 혁신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래 디자인과 협력적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그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In Roundtable 3, Korean and German industrial design experts discussed the innovation of digital paradigm design. They shared their experiences, knowledge and vision abou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future design and cooperative business ecosystem construction.



라운드테이블
CONFERENCE _
PODIUM DISCUSSION
ROUND TABLE

한국문화의 밤
KOREA CULTURE NIGHT

KOREA CULTURE NIGHT

한국 서울과 독일 뮌헨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017년 3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MCBW 2017 주빈국인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행사로서 국악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국의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인 강병인 작가와 국악인 박인혜씨가 함께하는 환상적인 캘리그래피 퍼포먼스와 연주 및 소리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시 | 2017년 3월 8일 (수), 18:30-20:30

장소 | 골드버그 스튜디오 지하전시실

Period | March 8 (Wed), 18:30-20:30

Location | Goldberg Studio Basement Gallery

To Celebrate the exhibition of Creative Space collaborated by graphic design studios from Seoul Korea and Munich Germany, a cultural event was held on Wednesday March 8th, 2017 at 18:30 to 20:30 pm at the Goldberg studio where the MCBW 2017 partnerland Korea's programs held. This exhibition was a result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this activity was connected to the theme of the MCBW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There was a calligraphy performance by famous Korean graphic designer Byungin Kang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performed by singer Inhye Park. It was an unique opportunity to experience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not only music and food but also calligraphy.



2017 뮌헨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위크 주빈국 행사
스마트를 넘어서, 휴먼 코넥션!
2017. 3. 4 — 3. 12
뮌헨 골드버그 스튜디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협력 바이에른 디자인, 바이에른 주 경제 미디어 에너지 테크놀로지부

행정 및 총괄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최봉현
KCDF 공예사업본부 본부장 임혜선
KCDF 공예문화진흥팀 팀장 류영미
KCDF 공예문화진흥팀 주임연구원 강주연

기획 및 진행

전시감독 임미선
큐레이터 김진아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큐레이터 김창식, 보리스 코헨
코디네이터 신자경
전시연출 디자인 총괄 임태희
전시연출 디자이너 이경훈
영상감독 정우람

아카이빙북 진행

발행처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행인 최봉현
발행일 2017. 4. 20
원고 임미선, 김진아
번역 (주)소통
사진제공 KCDF(이정민), 한국문화재단
디자인 지상이기_홍미나
인쇄 으뜸프로세스
발행부수 300부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2017
PARTNERLAND KOREA
HUMAN CONNECTION, BEYOND SMART!
4th — 12th March, 2017
Goldberg Studios, Munich

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r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Partners bayern design, Bavari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Media, Energy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al Staff

Bonghyun CHOI, President o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Hyesun LIM, Head of Craft Business Division
Youngmi RYU, Team Manager, Crafts Culture Promotion Team
Jooyeon KANG, Assistant Manager, Crafts Culture Promotion Team

Curatorial Staff

Misun RHEEM, Art Directo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Jinah KIM, Curato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Boris KOCHAN, Curato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for Creative Space Exhibition
Changsik KIM, Curato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for Creative Space Exhibition
Jakyung SHIN, Coordinato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Taehee LIM, Exhibition Design Directo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Kyunghoon LEE, Exhibition Designe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Wooram JEONG, Film Director of MCBW 2017 Partnerland KOREA

Archiving Book Publication

Publish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Publisher Bonghyun CHOI
Date of Publishing 20th April, 2017
Text Misun RHEEM, Jinah KIM
Translation SOTONG Inc.
Photos Provided KCDF(Jungmin LE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Design zisangegi _ Mina HONG
Print Top Process
Copies 300

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overnment Complex-Sejong, 388, Galmae-ro,
Sejong-si 30119 Republic of Korea
TEL+82 44 203 2000
FAX+82 44 203 3447

ORGANIZER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Haeyoung Building 5F, 53 Yulgok-ro, Jongno-gu, Seoul 03060 Republic of Korea
TEL+82 2 398 7900 FAX+82 2 398 7999
www.kcdf.kr

PARTNERS

Bayern Design

bayern design GmbH, Luitpoldstr. 3, 90402 Nürnberg
TEL+49 911 24022-30 FAX+49 911 24022-39
kontakt@bayern-design.de

bayern design GmbH - MCBW Coordination Office in Munich
Schleißheimer Str. 4, 80333 München
TEL+49 89 520356-61 FAX+49 89 520335-96
kontakt@bayern-design.de

Prinzregentenstraße 28, 80538 München
TEL+49 89 2162-0 FAX+49 89 2162-2760
poststelle@stmwi.bayern.de

VENUE

Goldberg Studios

Müllerstr. 46 AD-80469 Munich, Germany
TEL+49 89 230 990-0 FAX+49 89 230 990-20
www.goldberg-studios.de/en/

WEBSITE

www.mcbw2017korea.co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bayern
desig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Medien, Energie
und Technologie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GOLDBERGSTUDIOS